

2012. 08. Vol 218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물의 자서전

그는 스스로를 화가라고 말한다
비취지는 그대로를
화폭에 담아내는,
투명한
밑그림 위로
시간들이 그어진다.

지나치는 것들 모두 어머니라 부르고
머리를 쓰담기며
옹알이하며 눕는다
날마다
풀어헤치는
그 정갈한 웃고름

같이 사는 법을 그에게서 배운다
내가 아닌 우리로 하여
마을이 되어버린
모두가
주인인 그 곳
길을 따라 모인다.



서정교

- 월간문학 신인상 등단
- 시집 '내일이 모두에게 내일이 아니듯'
- 현 충청북도 진천소방서 근무



Contents

2012. 08. Vol 218



태양을 닮아 뜨겁구나
키를 높이 세워 바라만 보다
정열은 푸른 하늘에 묻고
그리움으로 고개 숙일 터
또 그런 사랑이면 어떠랴

- 4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 5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
- 8 부의장·각 상임위원장 의정 각오
- 11 정례회 주요 업무보고
- 12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
- 13 충북의정 60년사 발간
- 14 각 상임위원회 활동
- 21 주요 처리의안
- 22 도정질문
- 24 5분 자유발언
- 25 의정활동 이모저모
- 26 언론에서본 의정활동
- 28 건강·세무상식
- 30 의원논단
- 31 의정일기





▲ 의원들이 지난 7월 6일과 9일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하고 있다.

의장 – 김광수 의원, 부의장 – 김동환 · 임현 의원

충북도의회 후반기 진용 갖추고 출범

원구성 완료...6개 상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선출

2년간의 전반기를 마무리 한 제9대 충북도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새롭게 선출하고 후반기를 시작했다.

도의회는 지난 7월 6일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충북도의회를 운영해 나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재적의원 35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장 후보로 나선 김광수 의원의 의장 출마에 따른 정견발표를 들은 뒤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30표를 획득한 김광수 의원(민주당·청주1)이 의장에 당선 됐으며 제1부의장에 30표를 얻은 김동환 의원(민주당·충주1), 제2부의장에는 32표를 얻은 임현 의원(새누리당·영동1)이 각각 당선됐다.

이어 9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6개 상

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했다.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 운영위원장에는 김재중 의원(옥천1), 정책복지위원장에 장선배 의원(청주3), 행정문화위원장에 김희수 의원(단양), 산업경제위원장에 정현 의원(괴산), 건설소방위원장에 이광진 의원(음성2)이 각각 선출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김영주 의원(청주6)이 뽑혔다.

김광수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도민을 섬기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이 중심이 되는 의회,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정방향

‘복지확대-통합시 지원-균형발전’ 추진

열린의회 실현·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 형성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는 전반기에 이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핵심 과제로는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 지원,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 등으로 설정하고 해당 분야의 정책과제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의원이 중심이 되는 의회, 각

상임위가 중심이 되는 의회를 운영해 의정역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열린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각계각층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도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집행부와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해 도의회가 도정의 한 축으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역발전에는 적극 협력하는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도민들께 신뢰와 칭찬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고 있지만, 지방의회에 대해 주민들께서 느끼는 만족

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도의회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목표로 세우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도민들만 바라보며 우리지

역 발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충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와 칭찬을 받으면서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의회 위상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한여름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 광 수

제9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의 장
김 광 수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의회운영 위원회	 김재종 의원	 이광희 의원	 권기수 의원	 김봉희 의원	
정책복지 위원회	 장선배 의원 (청주 3)	 노광기 의원 (비례민주통합)	 김양희 의원 (비례 : 새누리)	 박종성 의원 (청주 8)	
행정문화 위원회	 김희수 의원 (단양)	 심기보 의원 (충주 3)	 김봉희 의원 (중평)	 김형근 의원 (청주 2)	
산업경제 위원회	 정헌 의원 (괴산)	 황규철 의원 (옥천 2)	 권기수 의원 (제천 1)	 김도경 의원 (청원 2)	
건설소방 위원회	 이광진 의원 (음성 2)	 김종필 의원 (진천 1)	 강현삼 의원 (제천 2)	 김영주 의원 (청주 6)	
교육 위원회	 박상필 의원 (교육 2)	 이광희 의원 (청주 5)	 김동환 의원 (충주 1)	 장병학 의원 (교육 4)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김영주 의원	 황규철 의원	 권기수 의원	 김도경 의원	 김봉희 의원



부의장
김 동 환



부의장
임 현

위 원



김 중 필 의원



노 광 기 의원



손 문 규 의원



심 기 보 의원



하 재 성 의원



황 규 철 의원



손 문 규 의원
(영동 2)



최 미 애 의원
(청주 9)



최 병 윤 의원
(음성 1)



임 현 의원
(영동 1)



정 지 숙 의원
(비례 : 민주통합)



유 완 백 의원
(보은)



윤 성 옥 의원
(충주 2)



이 수 완 의원
(진천 2)



김 재 종 의원
(옥천 1)



박 문 희 의원
(청원 1)



임 현 경 의원
(청주 7)



전 응 천 의원
(교육 3)



최 진 섭 의원
(청주 4)



하 재 성 의원
(교육 1)



김중필 의원



노광기 의원



손문규 의원



윤성옥 의원



장병학 의원



정지숙 의원



최병윤 의원



최진섭 의원

충청북도의회 전화번호

의 장 실	신관6층(F.5009)	220-5000~02
부 의 장 실		220-5003~04
비 서 실		220-5005~08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신관5층(F.5019)	
운 영		220-5010~15
입 법		220-5171~73
정책복지전문위원실	신관7층(F.5029)	220-5020~24
행정문화전문위원실	신관4층(F.5039)	220-5030~35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신관7층(F.5049)	220-5040~44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신관2층(F.5059)	220-5050~54
교 육 위 원 회	신관3층(F.5069)	220-5060~65
의회사무처장실	신관6층 비서실	220-5101~02
총 무 담 당 관 실	신관6층(F.5119)	220-5110
총 무 팀		220-5111~17
홍 보 팀		220-5121~29
의 사 담 당 관 실	신관6층(F.5159)	220-5150
의 사 팀		220-5151~55
		220-5161~70
기 록 팀		220-5196~97
본 회 의 장		220-5185

부의장 · 상임위원장 의정 각오

“정책 대안 제시 역할 강화할것”



김동환 부의장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도민을 섬기는 훌륭한 의정 활동을 펼치신 동료의원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은 저의 부족한 면을 거울삼아 낮은 자세로 부의장의 소임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겸허한 자세로 도민의 곁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가장 높이 여기고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내부의 의견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바로 도민의 의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좋은 일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159만 도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여 우리 의회가 건강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의회의 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하여 집행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역량 강화로 위상 제고”



임현 부의장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으로 제9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제8대 도의원으로서 4년간의 의정경험과 제9대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

원장단과 함께 의회운영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여 충청북도의회가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연찬하는 의회상 구현으로 의정역량을 강화시키고 의회기능 강화를 통한 위상제고와 함께 충청북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제시 등 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한 도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해 주신 도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부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도민의 뜻을 잘 받드는 충실한 의회운영”



김재종 의회운영위원장

제9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쁨보다는 어떻게 하면 충북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뜻을 잘 받드는 충실한 도의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먼저 느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회의규칙과 의회관련 조례 등의 정비를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입니다. 의장단, 상임위원회 그리고 모든 의원님

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집행부의 사업과 정책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집행부에 선도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는 왕성한 입법활동을 통해 충청북도의회가 충북도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뜻을 잘 받들어 도민 여러분의 관심사항이 도정전반에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자의 역할과 더불어 충북발전에 큰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진정한 협력자로서의 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의정 각오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 확대되도록 노력”



장선배 정책복지위원장

정책복지위원회는 도정의 기획과 복지관련 부서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입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에는 그간 제기됐던 여러 가지 현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다양한 정책과 제를 도출하는 단계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 제·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정책기획관실 소관업무의 경우 재정 건

전화와 효율적인 예산배분 방안, 창의적인 업무수행과 공정한 성과 평가 방식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 복지 분야는 보육, 교육,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노인 등 각 분야별로 많은 정책과제들이 있습니다.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화는 물론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원배분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도 가능한 한 자주 개최하겠습니다.

“소통과 상생의 의정 구현”



김희수 행정문화위원장

도정의 행정 전반에 대한 조정과 문화관광 진흥, 환경보전 및 수질관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제9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9대 도의회는 지난 전반기 2년간 도정진단을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소통을 통한 참여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해 왔습니다. 후반기에도 혁신의제에 대한 대안마련 및 견제·감시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동료의원님과 함께 도정에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를 만들겠으며 행정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소통과 상생의 함께하는 도정이 구현되도록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문화위원회가 충실한 민의(民意)의 대변자가 되어 도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활기찬 농촌 건설에 앞장”



정헌 산업경제위원장

국내·외 경기침체와 FTA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159만 충북도민이 다 함께 잘 살도록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들과 저는 도민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여 활기찬 농촌 건설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은 각오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농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촌정주여건 개선 및 농업인 소득증대 기반 구축으로 떠나는 농촌이 아닌 귀농하는 농촌으로 활기찬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낙후 지역 유망기업 유치, 시·군 산업단지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산업경제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의정 각오

“지역균형발전 위해 노력”



이광진 건설소방위원장

존경하는 159만 도민 여러분!
제9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북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관부서를 담당하는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충북도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는 전반기 2년 동안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전문성을 살린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도민에게는 신뢰받고 집행부와는 건강한 견제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충북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이 골고루 잘 살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겸손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는 건설소방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견제와 비판 역할 다할터”



박상필 교육위원장

저를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59만 도민 여러분 앞에 저에게 맡겨진 중책을 겸허한 마음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잡초를 솟아내는 농부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발견하면 망설임 없이 비판하며 견제 하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교육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의 바탕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백년의 앞을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지고 단기간의 성과와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올바른 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것처럼, 이제 제9대 후반기 의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도민의 가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운영 효율성 높일 것”



김영주 예산결산위원장

제9대 3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으로 제 자신의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많은 것을 느꼈지만 특히 제가 소속됐었던 상임위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마

음에 걸렸습니다.

물론 예·결산안에 대한 최종 심의 권한이 우리 예결특위 위원에게 부여된 것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견제, 감시에 충실하는 동시에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집중과 선택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 그리고 존중과 소통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후반기 의정활동 돌입... 원구성 후 정례회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

충청북도의회가 새롭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고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제312회 정례회 (7월 2일 ~ 13일) 기간 중 새롭게 구성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 예결특위가 심의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7월 2일 충청북도의회 개원 60주년을 맞아 충북의정 60년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도의회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충청북도 의정60년사'를 발간하고 발간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발간기념식에는 전·현직 도의원과 도지사, 교육감, 시민사회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상정된 의안을 심의하고 일문일답식 도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최미애 의원(정책복지위원회)은 민선5기 전반기 충북여성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해서 질문했으며 임현경의원(건설소방위원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오송역세권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한편 김광수 의장은 제312회 도의회 정례회 폐회에 앞서 “새롭게 출발하는 9대 의회 후반기는 전반기에 심어놓은 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성숙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7월 2일부터 13일까지 제312회 정례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2011년도 결산 승인 등 현안을 심의 의결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 → 도21건 · 교육청 11건 지적

해가 갈수록 충청북도의회 결산검사가 더욱 철저해지고 있다.

지난해 9대 도의회 들어 첫 번째 실시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는 그동안의 형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심도 있는 결산검사의 틀을 갖추는데 이어 올해는 더 철저한 결산검사를 벌였다는 평가다.

권기수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8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벌였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세입 세출 결산서의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들을 확인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위법 부당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예산 이월·전용의 적정성, 불용예산



▲ 결산검사 위원들이 2011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하고 있다.

발생사유, 기금 및 채권·채무 관리상태, 전용예산 규모 및 사유 등을 확인해 지난해 28건보다 4건이 늘어난 지적사항 도출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제312회 정례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각각 승인했다.

주요 지적사항

충청북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유지 소홀 △명시이월사업비 불용처리 미흡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요망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 △세외수입 고액 미수납액 징수대책 소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시 금액단위 표기 개선 △세외수입 과오납반환 최소화 철저 △공유재산 관리 철저 △지방도 투자재원 운영 부적정 △투자진흥기금 사업추진 미흡 △환경 보전사업 투자재원 사장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미확보 운영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소홀 △의료급여 미수납액 회계연도 구분 처리 오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관리 소홀 △

회계관리 소홀로 세출금 반납 과다발생 △국지도 사업지연 추진으로 사업비 반납 △공무 항공 마일리지 관리 철저 △예산 성과금 지급 개선 △지역 상생발전 기금 사용방안 개선 검토

도교육청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효율적 예산운영 미흡 △일상경비 반납액 과다 발생 △공유재산 매입 예산 집행 부적정 △민간투자사업 채무 상환 관리 개선 △미수납액 감액 이월 부적정 △국고보조금 관리 소홀 △공유재산 관리 소홀(폐교재산) △관행적인 보조금 예산 편성 지양 △사전 예산집행 계획 미 수립으로 반납액 과다 발생 △전기오류수정이익 작성 방안 개선 △물품수급관리 미흡

도의회 60년 발자취 속에서 미래를 보다

‘의정 60년사’와 ‘사진으로 보는 의정 60년사’ 발간

충청북도의회 60년의 연륜과 경험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값진 자양분이 되었고, 그 힘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동력이 됐다. 도의회의 이런 60년 발자취가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도의회는 의회 개원 60주년을 기념하는 ‘충청북도의정 60년사’와 ‘사진으로 보는 충청북도의정 60년’을 발간해 지난 7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시중 도지사와 이기용 교육감, 한현구 제4대 도의장을 포함한 6명의 전직의장, 전·현직 도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도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했다.

‘충청북도의정 60년사’는 의정 60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1대에서 9대에 이르는 도의회의 상세한 기록과 함께 지방의회의 일반론, 충청북도의회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향후 발전방안 및 미래상까지 제시함으로써 단순사료를 넘어 도의회에 관한 종합저술의 가치를 지니도록 했다. 편집과 저술과정에서도 일일이 전·현직 도의원들의 자문과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객관성을 확



보했다.

‘사진으로 보는 충청북도의정 60년’은 의회의 변천과정과 충북역사, 충청북도 60년사의 격랑 현장을 그대로 담아냈다. 1952년~1956년까지 초대 도의회 의정활동부터 2010년부터 시작된 9대 의회 모습까지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진이 수록돼 의정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기념식에서 김형근 전반기 의장은 “충청북도의정 60년 역사의 마침표이자,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60년 역사의 쉼표가 될 이 두 권의 책이 의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고 충북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소중한 자료로 쓰이길 바란다”고 소망을 피력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7월 2일 ‘충청북도 의정 60년사’ 책자를 발간하고 도청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12회 정례회)

예결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중)는 제312회 정례회 회기 중 세차례 운영위원회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7월 2일 제312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과 의회사무처소관 결산 심사를 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도정질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집행부에 대한 질문’으로 변경하고 질문의원 수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액은 457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5%인 82억 4,020만

원으로 이 중 80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 미집행된 2억 2,800만원 중 96.8%인 2억 2,1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3.2%인 722만원은 소송비 및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등 사안이 발생되지 않은 금액이다.

7월 9일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광희 의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며 2013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7월 11일 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 3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 했으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다. 신동인 의회사무처장은 상반기 성과를 보고하면서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의회 위상 제고와 상시의회 구현, 연구·연찬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7월 11일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12회 정례회)

의료원 우수 진료진 확보 주문



▲ 7월 11일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보건복지국 등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오송 화장품·뷰티세계 박람회 조직위 사무실 설치를 위해 예비비 4천3백만원 을 사용함에 대해 조직구성은 미리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조직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함을 주문했다.

또한 도립대학 시간강사수당이 7천2백만원 정도 불용 처리 되었는데 강의시간을 좀더 정확히 반영한 예산편성을 요청했으며 시간당 3만원에 불과한 수당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서는 의료기관은 우수한 의사와 수준 높은 시설장비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국 중상위권인 청주의료원의 시설장비 수

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우수한 의료진과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2012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충북인재양성재단이 8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사무국장 부임 후 5~6차례에 걸쳐 인재양성 분야와 관련 없는 청주·청원 통합 문제와 도지사의 치적 홍보 등에 관한 언론기고를 한 것은 준공무원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우수인재 발굴·양성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더욱 전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주의료원의 장례서비스에 관련해 장례서비스도 진료 못지않게 중요함을 강조하며 도민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고를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지하에 위치해 이용이 불편한 매점을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청주의료원이 7월부터 호스피스 전문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요인력 확보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12회 정례회)

도차원의 북부지역 지원 당부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별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도와 북부권 간 소통창구 역할과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출장소가 이전신축을 계획했다가 무산되고 그 후 부지매입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한 뒤 북부지역 도민은 균형발전을 위한 도차원의 지원 등 역할 및 기능 확대를 바라고 있으니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제반여건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관 소관 중 기술부문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술 인력의 배치가 바람직하다며 향후 조화로운 인력운영을 주문했다.

심기보 의원은 도청 청사가 협소하고 일부는 사무공간이 비좁아 불편한 곳도 있다며 도청 신관을 7층에서 8층으로 증축하고 활용공간을 파악 후 재조정하여 사무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하여는 전국에 많은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이 산재해 있는 만큼 충북만의 특

성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특정 전문분야에 집중하여 사업실적을 거둬주기를 당부했다.

김봉희 의원은 인사와 관련하여 시설직의 경우 토목 분야 6급 공무원이 10년 이상을 근무해도 사무관으로 승진이 안 되고 있다면서 다수를 차지하는 행정직렬 공무원에 비해 기술직렬 공무원이나 소수직렬 공무원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승진인사 시 배려가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형근 의원은 도의회에서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도민참여 기본조례와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는데 그 이후 집행부에서 운영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파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지숙 의원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정한 인사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한 후 누가 봐도 형평성 있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으로 공무원의 불평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7월 11일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12회 정례회)

지역별 특색사업 적극 발굴 촉구



▲ 7월 10일 경제통상국을 대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헌)는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했다.

먼저 7월 4일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시 낙후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해 운용중인 투자진흥기금의 사용 미흡에 대한 지적을 통해 기금 운영의 묘미를 살려 줄것과 낙후지역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유치 인센티브 확대 노력을 당부 했다.

또한 솔라밸리 마스터플랜연구용역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차질 없는 용역 추진으로 충북도 태양광산업 발전 방안에 경제통상국이 건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농정국에 대해서는 축사 신축에 따른 민원발생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바 청정 축산의 단지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과다불용 사업과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향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철저

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7월 10일과 11일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미진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고 MRO 사업추진은 충북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큰만큼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 대부분 청주·청원지역에 국한돼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발굴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시장개방과 고령화로 어려운 농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권역별 농업육성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서민을 위해 보증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홍보활동이 미흡해 이를 적극 개선할 것과 채권관리 추진에 만전을 당부하고 충북 TP에 대해서는 충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발전을 위해 충북TP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12회 정례회)

장마기간 수해 예방대책 강조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는 제312회 정례회 회기 중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회의를 열어 균형건설국, 바 이오밸리추진단,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의결 했다.

먼저 후반기 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실시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서 소관부서별로 상반기에 추진돼오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하절기 수해 예방대책을 강조하고 도민의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읍지에서 일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출동수당의 현실화와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화재사고 발생 시 소방본부에서 조사해 발표하는 피해금액이 너무 적게 산정되어 소방본부의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보상하고 있는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적게 받는 일이 있음을 지적하고 피해액 산정기준의 현실화와 피해액 산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한시조적으로 구성돼 업무의 연속성 등 업무효율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기구의 의결권한은 없지만 진천·음성 양군 주민의 의견수렴만 할 것이 아니라 수렴된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일부사업들은 도의 추진의지가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 사업은 철저히 재검토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관부서에서는 새로 구성된 위원회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 충북도의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 7월 10일 균형건설국으로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교육위원회

(제312회 정례회)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 7월 10일 충청북도교육청 관계관으로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7월 5일 제 312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의 시행시기를 변경하여 수정 의결했다.

이날 결산 심의 과정에서 박상필 교육의원은 4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110개나 된것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주문했고 이광희 의원은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이자수입 증대를 요구했다.

장병학 교육의원은 교수학습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고, 전웅천 교육의원은 폐교재산 관리의 소홀을 지적하면서 임대료 미수납액을 조기 수납토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진섭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향후 도교육청 감사부서에서 점검하여 매년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줄것을 요청 했으며, 하재성 교육의

원은 예산 과다책정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당초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김동환 의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불용액 발생을 줄이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7월 10일 3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며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과정에서 이광희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고, 장병학 교육의원은 각종 교육정책 수립 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전웅천 교육의원은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에 시·군별로 균형 있는 지원을 당부했으며, 최진섭 의원은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연차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하재성 교육의원은 사랑과 존중, 나눔과 배려가 습관화가 되도록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당부했고, 박상필 위원장은 예체능 교과에 편중된 교과집중이수제를 지양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시행하도록 주문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12회 정례회)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제9대 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7월 11일 예결특위에 상정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602억 8,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7,897억 6,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705억 1,600만원이다.

예비비는 5억 1,190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81만원을 집행하고 1억 509만 3천원이 불용처리됐다.

또한 7월 12일 상정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결산액」은 3조 3,16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1.7%, 세출결산액은 3조 80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4.5%이며 2,357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됐다.

기금은 합관리기금 등 1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298억원에서 2011년도 조성액은 460억원, 집행액은 539억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219억원이다.

예비비는 49억 6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7억 1천만원이 집행되고 1억 4천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억 2천만원이 불용처리 됐다.

예결위 구성 후 불과 이틀만에 실시된 결산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도교육청의 결산서 작성 오류사항을 정확히 짚어내어 교육청 관계자들은 물론 도청관계자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는 불용액 과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등을 예산의 원칙에 맞도록 편성·운영할 것과 예산과 결산에 따른 정확한 자료제출 등이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7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했으며, 심사결과를 2013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7월 12일 예결위원회를 개최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있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회)

도정질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정에 관한 질문의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도정에 대한 질문 제목 변경
 - “도정에 대한 질문”을 “집행부에 대한 질문”으로 변경
-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하는 질문의원 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구체적인 질문요지서 작성 제출
 -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함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회계별

(단위 : 원)

구 분	건수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2	4,960,522,000	4,705,443,670	137,852,000	117,226,330
일반회계	12	4,960,522,000	4,705,443,670	137,852,000	117,226,330
특별회계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지 출 건 수 : 6 건
- 지 출 결 정 액 : 511,903,000 원
- 지 출 액 : 406,810,000 원
- 다음연도이월액 : 0 원
- 잔 액 : 105,093,000 원

- 201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건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잔 액	비 고
강풍피해 복구비	2011.5.3.	35,453,000	30,675,000	0	4,778,000	충북대학교 병합
배상액 지급	2011.5.3.	3,000,000	3,000,000	0	0	전북대학교 병합
호우피해 복구비	2011.7.20.	70,060,000	61,850,000	0	8,210,000	충북대학교 병합
호우피해 복구비	2011.7.20.	194,580,000	172,251,000	0	22,329,000	충북대학교 병합
호우피해 복구비	2011.8.23.	84,000,000	71,459,000	0	12,541,000	충북대학교 병합
호우피해 복구비	2011.9.16.	124,810,000	67,575,000	0	57,235,000	충북대학교 병합
계		511,903,000	406,810,000	0	105,093,000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교육감에게 기 위임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과 연계 운영이 필요한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사무관리규정」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운영평가와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업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함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심사의결을 받고자 함

-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결산액 : 2,060,283,042,110원
 - 세출결산액 : 1,789,767,308,250원
 - 세계잉여금 : 270,515,733,860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61,744,947,840원, 보조금 잔액 123,105,18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8,647,680,840원임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01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인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

- 세입·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액	세출 결산액	세계잉여금
계	3,316,064	3,080,399	235,665
일 반 회 계	2,876,216	2,682,121	194,095
특 별 회 계	439,848	398,278	41,570
지역개발기금	210,861	181,414	29,447
충북도립대학운영	10,113	9,508	605
의료급여기금	173,758	173,676	82
농어촌개발기금	16,235	14,474	1,761
학교용지부담금	10,631	4,938	5,693
광역교통시설	4,689	718	3,971
충청북도균형발전	13,561	13,550	11

- 기금현재액 : 121,931백만원
- 채권·채무현재액
 - 채권액 : 761,331백만원, 채무액 : 663,089백만원
-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 공유재산 : 7,056,268백만원, 물품 : 23,566백만원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 · 답변

최미애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전반기 충북 여성정책 평가

[질문] 여성정책 부서의 축소된 조직개편, 잦은 인사이동, 여성정책관이 5개월간 공석인 사유 및 인사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민선5기 여성계에서 지속 요구해온 여성전담 독립기구를 올 1월 1일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종전 문화여성환경국 여성정책과(5팀 20명)에서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정책관(6팀 24명)으로 확대 강화하고 여성발전센터 조직도 3팀 14명에서 과체제인 1과 4팀 17명으로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1월 1일)하여 충북여성의 발전을 이끌 훌륭한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 공모를 하고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 및 검증과정으로 여성정책관 임용이 늦어져서 금년 6월 1일 임용했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승진, 조직개편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전보 제한기간을 준수했으며 전문성·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연구실적·연구활동 관련

[질문] 여성발전센터의 여성정책 연구실적과 연구원 배치 등 연구활동은 무엇입니까.

[답변] 여성발전센터에 04년 연구개발팀을 신설하여 현재 연구원 2명(박사급1, 석사급1)이 배치되어 있으며 연구원 수와 연구 실적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06년 1월부터 12년 6월까지의 연구실적은 33과제로 연평균 5과제 정도를 수행했습니다.

12년의 경우 1인당 평균 연구 실적이 3건으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그 동안 연구결과물에 대해 언론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반영은 물론 유관기관에서도 적극 활용 중입니다.

연구활동 이외에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지원, 전문 토론회 등을 개최했으며 12년 1월 1일 성별 영향평가팀 신설(연구원 3명

박사급1, 석사급2)로 곧 3명의 연구원을 충원해 연구기능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성인지 정책 관련

[질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정책 시행을 위한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성인지 정책 제도의 체계적인 추진을 12년 1월 1일 여성정책 전담조직을 개편하여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정책관으로 성평등정책팀(여성정책관), 성별영향평가팀(여성발전센터)을 신설했으며 12년 6월 1일 여성정책·성인지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방형 여성정책관을 임용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을 지정 운영(12.3.16)하고 있으며 12년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20회 실시하여 총 1,800명 정도가 수강했습니다.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정책 5분 아카데미를 매주 월요일(확대간부회의)에 실시하고 12년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작성(343사업)하고 13년에는 성인지 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후반기 여성정책 관련

[질문] 성별영향평가 전담기구 설립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1년 6월 28일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12년에 여성발전센터 내에 연구원 3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현재 모집공고 중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사유는 타 시·도의 경우 법인 연구기관에 설치해 기존인력 활용 및 신규채용이 용이하나 우리도의 경우에는 사업소인 여성발전센터에 설치하다 보니 인원증원에 따른 총액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한 조직개편 및 전문직 채용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지연되었습니다.

12. 7~9월까지 전담인력(계약직)을 채용하여 여성가족부에 지정기관을 신청하고 12. 9월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 · 답변

임 헌 경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 유치

[질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외자유치 MOU체결 실적은 무엇입니까?

[답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외자유치 실적은 5개 기업에 9700만 달러입니다.

[질문] 벤처입주시설 내 벤처기업 유치실적은 무엇입니까?

[답변] 충북TP에서 벤처연구센터내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6월에 유치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도 기업연구관 건립·운영이 포함 됐습니다. 아울러 충북대와 독일 BCRT가 공동으로 한독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소를 설립·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추진

[질문]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지구지정(10.10.15) 이후 실시계획 승인신청(11.12.5), 보상계획 공고(12.1.2) 등 순조롭게 사업추진 중입니다. 지난 2월말 총사업비 내부투자 심사 등으로 연대 보상이 불가하다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통보이후 잠시 답보상태에 빠져 있으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의 탁월한 입지여건과 풍부한 바이오 인프라 등 뛰어난 투자가치와 대상지 주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사업의 시급성, 공기업의 책임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으로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질문]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의 보상과 조성원가가 급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한국산업단지공단 추산 사업비 급등내역은 기반조사와 암반분포 및 단지경계부 사면 처리구간 과다 발생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오송 1단지 및 KTX 오송역 개발 등 주변 개발호재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액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송역세권 조성

[질문] 오송역세권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 현재 충북개발공사에서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과 홍보자료 작성을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6월 19일 한국도시설계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질문] 오송역세권 조성사업 보상 및 착공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 금년 말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공모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2013년말 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는 보상물건 조사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나 다만 역세권 조성사업의 보상 및 착공시기에 대하여는 민간사업 시행자 모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밸리 조성 전략

[질문]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민간평가단의 평가결과와 지식경제부의 보완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전문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 위촉위원 자문을 통한 수정방향을 설정하여 금년 중에 추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문] 청주·청원 통합 이후 도의 위상문제와 지역균형 발전 전략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민들께서 통합시가 광역시가 되어 충북이 너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통합이 되더라도 광역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청주권에 오히려 도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기도 된다는 측면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5분 자유발언

원칙을 우선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 필요



정지숙 의원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듯이 인사는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직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단행되었고 언론에서도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능력과 업무중심의 인사도 중요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또한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과 업무중심의 인사를 했다 할지라도 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공

정한 인사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인사는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지 못했고 사기진작 면에서도 뒤떨어진 인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공감 받는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직렬과 장기 미승진자에 대한 배려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원칙을 우선하는 인사를 실시하여 앞으로는 인사와 관련해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투명한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양희·장선배·박문희 의원 ‘베스트 도의원’영예

충북도 공무원 노동조합 베스트 도의원 감사패 전달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설)은 7월 2일 노조사무실에서 지난 ‘충청북도의원 설문조사’에서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된 김양희·장선배·박문희 의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충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원들의 성원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후반기에도 충북도정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하는

도의원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정진설 위원장은 “이번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았던 조합원들이 선정한 참 도의원”이라며 “베스트 도의원 선정을 의정활동의 도약대로 삼아 한층 더 성숙한 도의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베스트 도의원 선정

7월 2일 충청북도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실시한 충청북도의원 설문조사에서 김양희·장선배·박문희 의원이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 의장단 · 상임위원장단 회의

7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 앞서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의장단 · 상임위원장단이 회의를 하고 있다.



◀ 감사패 전달

7월 18일 중국 강서성 경덕진시 서법가협회 광립(郭立) 주석 등 10여명이 도의회를 방문해 한중 서예문화 교류에 힘써온 김광수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충혼탑 참배

7월 9일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광수 의장이 업무수행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과 충혼탑을 참배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긴장모드' 신호탄 쏘다

도정질문서 바이오텔리사업 등 '날선 질타'
민주당 일부 의원, 이 지사와 이상기류 형성

"후반기 의정활동에 나선 충북도 의원들이 반가워 달라라"는 것이다. 지난 13일 오전 충북도의회 31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일부 도의원들의 도정질문을 지켜 본 도정 공무원들이 대체적인 견해다.

전반기 동안 충북 집행부의 '시내' '거수기'인 소리를 들어왔던 도의회가 후반기 첫 도정 질문에서 모처럼 낯선 모습을 보였다. 한마디로 도의회의 집행부가 모처럼 긴장모드로 전환할 분위기가 연출됐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임현경(청주)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도가 추진하는 오송바이오벤처사업은 국비 250억원, 도비 220억원, 민자 4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투자 실적이 전무하다"며 "사업이 자부담자보다도 개발자에게 부담된 현행부지로서 자살 고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현행의료보

여 활동"과 "의료 민자 1천500억을 유치해 반듯하게 짓겠다"는(여당내에서) "벤치"생태 건

오송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에서도 그는 "토지보상계획 1차 7월에서 9월로, 다시 올해 9월로 연기했고, 최근엔 9월로 연기했다"며 "문제는 도가 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인공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도의 정책에 관련

2012년 07월 11일 (수) 04면 정치

충청투데이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돌입

5개 상임위 열려

충북도의회는 10일 5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열어 후반기 본격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행정문화위 김희수 의원은 이날 열린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도와 북부권간 소통창구 역할과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출장소의 이전신속이 계획됐다가 무산되고 부지매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차원의 지원 등 역할 및 기능확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책복지위 최미에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대상자 10명에 2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업비도 부족하고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적이 저조하다. 사업비 확보와 홍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소방위 강현삼 의원은 "중원문화원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 추진의지가 매우 미약하다.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 사업은 철저히 재검토하는 등 지속적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경제위 권기수 의원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 대부분 청주·청원지역에 국한돼 있어 남·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지역간 균형발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ccctoday.co.kr

충청투데이 충북도의회 원구성 잡음없이 마무리

상임위원장, 교육위 제외 민주당합당 싸움이

제9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도내 기초의회와 달리 의장·부의장·상임위원선출 과정에서 잡음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6일 의장·부의장을 선출했던 도의회는 9일 제31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았다.

투표를 통해 운영위원회장은 김재중(우진), 정책복지위원장 정선배(청주1), 행정문화위원장 김희수(단양), 산업경제위원장 정현(괴산), 건설소방위원장 이광진

(음성) 의원을 선출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교육위원회장은 박상필 교육위원을 뽑았다. 교육위원회장 자리도 민주당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으나 교통 정리 끝에 결국 교육위원회에 돌아갔다.

전반기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운영위원장(산업경제위원장) 한 자리를 잃고 부의장 자리를 대신 얻었다.

앞서 도의회는 9대 후반기 충북도의회를 이룰 후반기 의장으로 민주당 통합 김광수 의원(65·청주1)

을 선출했다. 부의장으로는 민주당 통합 김동원 의원(61·충주1)과 새누리당 임현 의원(67·영동1)을 각각 선출했다.

부의장 자리 2개 중 한 석을 새누리당에 양보한 결 제외하면 민주당 통합이 싸울만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검치무위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모 의원은 해당 상임위 잔류를 고집해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2년 의정을 이끌다 평의원으로 돌아간 김경근 전 의장은 행정문화위원회에 배정됐다.

전반기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도 간곡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 통합 최미에(청주9), 새누리당 김양희(비례) 등 두 여성의원도 정책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된 점도 눈길을 끈다. /현정준기자 cheonkiza@ccctimes.kr

충청투데이

2012년 07월 09일 (월) 01면 종합

Question 김광수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역동적이고 열린 도의회 실현"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도민들에게 직접 개지지는 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관한기사 4면 김광수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민주당·청주1)은 포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여록 일 잘 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정책·감사·대안제시 등 역동적으로 움직여 도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 않고 도민들이 실행하는 안정적 의회를 만들어 가고 싶었다.

또한 도의회로서는 노년 참여를 도모해 보살살이부터 시작 2개월 동안 의원을 했다.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역동적이고 열린 도의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안이다. 입법조례도 간대비해 크게 높았다. 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양상적 의욕이 도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반기 의회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시정부가 적었다. 시정부가 집행부에서 미흡한 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이 너무 많았다. 유급 보좌관제와 의원비 인상 등 도민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동안 일어난 일과 비교하면 예쁘게 바꿀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후반기 역동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은 우선 실질적인 '열린 의회'를



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다. 이를 하도록 권고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다. 의원들도 집행부와 함께 하고 생각하지만 전문적인 해를 해가 있어

실현하겠다. 의정실과 상임위원실 등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래 문화를 열어야겠다. 누구나 찾아와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충청투데이

2012년 07월 10일 (월) 05면 종합

충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

운영위 김재중

정책복지위 장선배

행정문화위 김희수

산업경제위 정현

건설소방위 이광진

교육위 박상필

김재중

장선배

김희수

정현

이광진

박상필

장 민주당 아광진(음성)이 선출됐다. 지난 6일 치러진 의장단 선거에서 민주당 측이 새누리당에 부의장 한 자리를 양보하면서 여야간 마찰은 보이지 않았다.

전반기 의장이었던 김경근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에 배정됐다. 후반기 상임위 배정까지 마무리한 이날 남달라진 것은 개원 이후 줄곧 갈등을 빚었던 새누리당 김양희(비례) 의원과 민주당 최미에(청주9) 의원이 정책복지위에 활동하게 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집행부 저격수'로, 최 의원은 민선5기 충북호의 '수문장' 역할을 해오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앞서 후반기 의장으로는 민주당 김광수(65·청주1) 의원이, 부의장으로 민주당 김동원(61·충주1) 의원과 새누리당 임현(67·영동1) 의원이 선출됐다. 김광수 의장은 "후반기에는 소수당 의원을 배려해 싸우지 않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면서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ccctoday.co.kr

- 의정별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현황
-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위원장) ▲박종성 ▲최미에 ▲손문규 ▲최병은 ▲김양희 ▲노경기
-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위원장) ▲김경근 ▲산기보 ▲임연 ▲김병희 ▲정지숙
- 산업경제위원회 ▲정현(위원장) ▲문성국 ▲권기수 ▲김도경 ▲유관복 ▲황규칠 ▲이수만
-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위원장) ▲김영주 ▲임현경 ▲김현삼 ▲박민희 ▲김재중 ▲김종필
- 교육위원회 ▲박상필(위원장) ▲최진선 ▲이광희 ▲김동원 ▲하재성 ▲전윤성 ▲정병익

예쁜 발, 건강한 발, 깨끗한 발 만들기

무더운 여름이면 여성들은 발가락과 발등을 흰히 드러내는 샌들을 신는다. 평소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여성의 발이 여름이면 고통받는 것을 아는가? 특히 무좀, 발 냄새, 굳은살, 티눈 등이 그 것들인데, 여름철 여성의 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본다.

한여름 여성은 무좀으로 괴롭다

무좀으로 병원에 내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가 있을 정도로 최근 무좀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특히 습도나 기온이 올라가 땀이 많이 나는 장마철부터 한여름은 무좀이 발병하고 재발이 잦은 시기다. 이 무좀은 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

원인균이 피부의 각질층에 침입해 감염

무좀의 원인균인 백선균이라고 하는 곰팡이의 일종은 이 케라틴을 영양소로 성장하고 번식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부 각질층을 파고 들어가 접촉을 함으로써 침입을 시작하게 된다. 평소 균이 붙어있는 발을 씻지 않고 내버려두는 사람은 무좀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좀곰팡이가 좋아하는 열과 습기를 피해야 한다. 외출했다 귀가하면 발을 깨끗이 닦고 파우더를 바르면 도움이 된다. 양말이나 신발은 잘 맞고 통풍이 잘되는 것이 좋다. 특히 발에 땀이 많은 사람은 나일론 같은 합성섬유 양말을 피하고 면양말을 신는 게 좋다.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광범위피부질환치료제의 성분은 무좀곰팡이를 죽이는 성분 외에도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들어 있는데, 성분은 몸에서 곰팡



이를 몰아내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을 억제한다.

이같은 연고를 바르면 증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무좀이 완치되기 어려운 만큼 피부과를 찾아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연고를 고르는 게 필요하다.

여름에 심해지는 발 냄새가 걱정이라면

여름철 발 냄새는 발바닥 땀이 주원인이다. 발바닥은 등이나 가슴의 5~10배 정도의 땀샘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으며 하루에 약1컵 정도 분량의 땀을 흘리게 된다. 여름철 발 냄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 냄새의 원인인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을 씻은 뒤 발가락 사이사이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도록 하자. 또한, 진하게 우린 녹차 물에 발을 담그면 살균 및 수렴 작용이 있어 발 냄새 제거에 탁월하다. 미지근한 물에 식초를 한두 방울 섞어 사용하면 발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된다.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발가락 사이사이에 30분 정도 붙여두면 냄새제거효과 만점이다.

샌들이나 장마철에 신는 장화에 숯을 이용한 신발 깔창을 깔아보자. 숯의 통풍, 항균기능은 발의 공기순환을 가능하게 해줘 땀을 신속하게 흡수, 건조시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해준다.

[도움말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건강증진의원]



세무상식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과 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였으며 이는 2012.2.2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 어업소득 추가
 - 「축산·양어 등」의 범위에서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 어업) 추가
- 부업 가축규모 확대
 - 소·젓소 30마리 → 50마리
 - 돼지 500마리 → 700마리



- 부업 소득금액 인상
 - 연간 1,800만원 → 2,000만원

국세청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민원인이 민원증명 발급을 위해 세무서로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스마트폰)로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번호 등을 부여받아 증명수요처에 알려주면 수요처가 직접 해당 증명을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주요 민원증명 종류

- 발급일 현재 기준으로 발급(7종)
 -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모법납세자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발급(5종)
 -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명세서

세무서 방문예약 서비스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전자민원」->「방문상담예약」을 클릭하여 신청하고, 예약된 시간에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 예약 시간 확정시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메시지 발송

- 방문상담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청주·동청주세무서 자료제공]



김형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9대 의회 후반기의 문을 열며

전반기 도의회 의장직을 마치고 후반기라는, 나로서는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는 문턱에 서있다.

도의회 의장직은 분명 과분한 직책이었지만 명예롭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지면을 통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돌아보면 지방자치 부활 20년, 도의회 개원 60년을 맞이한 9대 의회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한 마디로 ‘변화’라고 판단하고 때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생기와 의욕으로 가득했던 전반기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길 바란다.

조선으로서 의장박엔 해본 것이 없는 내가 낯설기도 한 상임위원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도정질문, 조례발의, 행정사무감사 등 개인 의정활동면에서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며 전에 없는 실적을 쌓은 동료의원들의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까 두려운 게 사실이다.

주변의 적잖은 사람들이 말한다. “의장출신은 뒤에서 점잖게 뒷집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맞나? 현대 주민들은 또 “의장였다는 건 관심 없고 우리가 뽑은 의원인데 주민을 생각하며 열심히 해야죠”한다. 어찌할까 헛갈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내가 의장이임식 때 사무처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을 떠올리며 나 스스로에게도 다짐해본다.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도정의 파수꾼이 되어주십시오.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고 깨어있으십시오”

향후 개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조례의 제·개정이다. 제9대 의

회 전반기에 이뤄진 의원발의 조례는 117건으로 전대 의회보다 2배 정도나 많고 도와 교육청이 발의한 114건보다도 많으니 실로 대단한 실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민들의 도정에의 불만족도는 아직도 높고, 시대는 빠르게 변천하며, 사회의 욕구는 갈수록 다양화된다는 점에서 도의원들이 감당해야 할 조례에 대한 임무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남북협력시대를 예비할 남북교류협력조례,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등 입법 활동은 나의 관심을 크게 끄는 분야이다.

또한 나의 의정활동이 매개가 되어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 시민사회와 의회는 똑같이 감시자, 견제자로 상호 협력해야 할 위치로서 도의회에 몇 안 되는 시민사회 출신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하려한다.

이제 강제성도, 짜여진 틀도 없지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여부는 오로지 의원개인의 노력으로 결정될 뿐. 우리 상임위 소관인 행정·문화·관광·환경 분야의 원론서적을 최소한 한 권씩은 읽고 지난 2년간의 상임위 업무보고서, 예·결산 결과서, 행정감사보고서를 탐독하고 전문위원실 직원들로부터 소관 현안문제도 파악해야겠다. 그러고 보니 폭염이고 휴가고 관심 둘 수가 없지않나, 시간이 없다!

쉽 없이 내달려온 2년을 뒤로하고 평의원으로서 돌아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든든한 일꾼으로 진실되게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해본다.

“남부권 농업발전 위해 노력 할터”

황규철 의원(산업경제위원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전반기 2년이 아쉽게 지나가 버렸다.

이제는 지나온 전반기를 되돌아보며 남은 후반기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2년은 우리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지역구인 옥천은 대청댐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아왔다.

지역 농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속적인 지원으로 친환경적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였었다.

이를 위해 작년 7월 옥천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균형발전 촉구’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5분 발언에서 충청북도는 남부3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하여 농업을 크게 발전시켰는데, 본 사업이 2013년 일몰제로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는 남부3군을 생명농업특화지구로 승화시켜야 충청도의 농업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낙후된 남부3군 모두가 잘 사는 방안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부출장소 개청 시 농산업 추진 전담

부서를 신설, 남부3군 농정분야 담당자들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전국 최고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명실상부한 ‘생명농업특화지구’로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의 역점사업이 대부분 청주·청원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시·군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낙후지역 주민들은 소외의식 고조와 소득격차 확대로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피력하였으며 충북도가 진정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 관련 예산을 줄이지 말고 더 늘려달라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잘된 점 보다는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입게 될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되는 예산과 선심성 예산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봉사단체인 라이온스클럽 회장으로서 옥천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나누기 사업과 다문화가정 집 고쳐주기 사업 등을 통해 직접 봉사하며 소외계층에 미소를 찾아주는 행복바이러스가 될 생각이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